



신건일 전기안전공사 부사장 취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신건일 전 건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을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공사는 신 부사장이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에너지 전환기 속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29일 밝혔다. 1989년 충남 금산 출생인 신 부사장은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장과 환경피해구제과장, 건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 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재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신 부사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지난 2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취임 인사를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 도 지역·드론측량 경진대회 '우수상'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제7회 지역·드론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팀에 선정되며 지역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지난 24일 완주군 감물숲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도내 14개 시군구 대표팀과 경쟁해 우수상을 수상하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지역·드론측량 경진대회는 전복도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도내 지적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측량 기술과 제도 이해도를 겨루는 자리다. 올해 대회에는 14개 시군구에서 선발된 지적 공무원 42명이 14개 팀으로 참가해 측량 정확성과 현지 검사 능력, 최신 지적제도 이해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시 대표팀은 민원지적과 오영욱 주무관, 김장남 주무관, 이한술 주무관 등 3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최신 측량장비 운용 능력과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 능력 등 평가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1년간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적부심 측량을 수행하게 된다. /김제=박태기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지리산농협 육묘장 농촌일손돕기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종주)는 29일, 이영민의 지리산농협 육묘장을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종주), 전북생명총국(총국장 지광수), 농신보남원센터(센터장 이성진),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의 임직원과 주부대학 회원 및 이영민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벼 모판 나르기 작업을 함께하며 부족한 농촌 인력 지원에 힘을 보탰다. 농협 남원시지부는 지난 4월 15일 방남형 영농지원 발대식을 시작으로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종주 지부장은 "바쁜 일정 중에 내 일처럼 달려와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만금 세대 잇고 변화 이끈다

새만금청, 혁신그룹 '뉴웨이브 제4기' 출범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 이하 새만금청)은 조직문화 개선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선도할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이하 '뉴웨이브') 제4기'를 구성하고, 4월 29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인권 청장 직무대리와 뉴웨이브 회원들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식과 올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소망 비행기 날리기 등 혁신 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3년에 출범한 뉴웨이브는 새만금청의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혁신그룹으로, 그간 △새만금청 조직문화 개선 9대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행정 일선의 목소리가 조직 전체로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 등을 수행했다. 이번 제4기 뉴웨이브는 제3기의 혁신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기성세대의 혁신 활동 참여기회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반영하여 참여대상을 엔지(MZ)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공무원도 선정했다. 기존 자연차·신규직원에서 근무 연수 5년 이상 직원



5명과 5년 미만 직원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며, 경험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세대 융합형 혁신 조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를 통해 경력 직원의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 자연차 직원의 참신한 시각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협업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수평적 소통과 협업 문화 확산 △적극행정 및 혁신성과 향상 등 새만금청의 변화를 위한 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청장 직무대리는 "급변하는 새만금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조직 스스로 먼저 변화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도, 전주올림픽 유치 기반 강화... 체육계와 협력방향 논의

전북야구소프트볼협회 등 참여 간담회 이은 후속 논의... 종목별 의견 수렴 지속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체육계와 전문가, 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정부 심의 대응과 실행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내 경기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주 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정부 심의 대응 전략과 체육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역도연맹, 전북요트협회, 전북유도회, 전북조정협회 등 주요 단체가 참석해 종목별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국내·국제대회 유치 전략, 체육 인프라 개선, 지역 스포츠 발전 방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올림픽 유치 기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전북야구소프트볼협회와 전북테니스협회가 참여한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로, 도는 이를 통해 종목별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연말까지 주요 종목단체와의 월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올림픽 홍보와 도민 참여 확대 방안 등 핵심 과

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계 교수진과 전북도체육회, 전북도교육청 등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도 병행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정책 실행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6개 대학 체육과 전공 교수진과 체육단체, 연구진이 참여한 전북체육포럼은 지난 4월 1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제1차 세미나를 열고 전주 올림픽 유치 가능성 진단과 올림픽 유산 관리, 도시재생 연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포럼 참석자들은 올림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전주 올림픽 유치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 성장 전략과 체육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담당관은 "올림픽 유치는 행정민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체육계와 민간 전문가 교육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행력 있는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 올림픽 유치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공정선거참관단 발대식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9일, 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공정선거참관단 추첨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참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참관단(이하 참관단)은 선거관리 전 과정을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최초 운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참관단은 구성 및 운영상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학회(전북대학교 신화협력단)가 주관하며, 정당·시민단체·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총 8명의 참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사전투표와 투표 개표 과정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참관위원 소개와 선서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발대식 종료 후 전북선관위의 선거절차 설명, 선거장비 시연회 등이 이어져 참관위원들의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선거참관단 최종현 단장(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번 참관단은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확인·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관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군산 월명동, 어린이날 맞아 사랑의케이크 나눔

군산시 월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상귀정, 민간위원장 임광빈)는 29일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 35가구에 5만원 상당의 케이크 쿠폰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협의체의 2026년 특화사업인 '꿈 뚝뚝! 사랑 뚝뚝! 날마다 우리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임광빈 민간위원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아이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귀정 공공위원장 역시 "어린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남원시립조합, 장애인 부부에 냉장고 선물

남원시는 지난 28일, 남원시립조합(조합장 허윤영)이 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장애인 부부에게 냉장고(시가 60만원)를 선물하며 축하했다고 전했다. 남원시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 1쌍이 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으며, 뒤늦은 결혼 소식을 접한 남원시립조합에서 부부에게 선물을 증정한 것이다. 허윤영 조합장은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축복을 기원한다"라고 축하를 건넸다. 남원시립조합과 소속 단체들은 평소에도 축산물, 식품 후원 등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장애인 지원사업을 적극 펼칠 예정으로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승호 정읍시 도시과장, 장학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시청 유승호 도시과장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21일 모친상을 치르며 받은 조의금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져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유승호 과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과장은 지난해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꾸준한 선정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기탁금은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간담회

남원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8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도 남원시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과 제공기관 지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원시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총 20개 서비스를 27개 제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민간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려는 데 뜻을 모았다. 김현옥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28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6년도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회장 고영환 외 2명)을 선출해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운영 기반을 다졌다. 또한 한숙경 교육장이 직접 주관하는 청렴 특강에서는 학교 발전의 동반자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이 갖춰야 할 청렴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임원장들은 영어체합학습센터와 고창도서관(세풍) 등 교육지원청 소속 시설을 견학하며 지역 교육자원의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기자

산림조합 나눔재단, 장수군에 이웃돕기 물품 기탁

장수군은 29일 (재)산림조합 나눔재단이 1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된 물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탁된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재)산림조합 나눔재단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수=김기두 기자